



탁영아

한층 더 깊은 베토벤을 만난 음반

피아니스트 탁영아가 Steinway and Sons 레이블을 통해 베토벤의 작품을 담은 음반을 발매했다. '격정과 우아함의 감동적인 조화'(San Antonio Express-News), '열정, 상상력, 진실함이 어우러진 최상의 조화'(New York Concert Review)라는 평을 받으며 활발하게 연주하고 있는 그녀가 베토벤의 음악에서 얻은 감동과 깨달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음반. 그 소중한 시간의 이야기를 만나보았다.

Steinway and Sons 레이블로 베토벤 음반을 발매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탁영아가 Steinway and Sons 레이블을 통해 베토벤의 작품으로 구성된 음반을 발매했다. 스타인웨이의 스피리오 피아노(녹음된 아티스트의 연주를 재현할 수 있는 자동 연주 피아노) 녹음 작업을 이어오던 탁영아에게 스타인웨이 측에서 솔로 음반 녹음을 제안했고, 이에 'Steinway Classics'의 일환으로 All-Beethoven CD로 발매되었다.

"스피리오 피아노 녹음은 제 연주를 들은 스타인웨이의 총괄 Music and Media 디렉터 Jon Feidner의 추천으로 시작했습니다. 스피리오 피아노는 연주자의 섬세한 표현까지 모두 인식하며, 스피리오 피아노가 있으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곡이 어디서든 연주될 수 있죠. 피아노 라이브러리에 녹음된 호로비츠나 코르토의 터치까지도 다 볼 수 있고,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술의 발전에 제가 한 부분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첫 프로젝트로 베토벤의 론도와 피아노 소나타를 녹음했고, 드뷔시의 <영상 1집>도 녹음했죠. 이 녹음 과정을 거치면서 스타인웨이 측에서 제게 솔로 음반 녹음을 제안했습니다. 프로듀서와 여러 프로그램에 가능성을 열어두며 수차례 대화를 나눈 결과, 최근 몇 년간 베토벤의 곡들을 꾸준히 들려 연주해오던 제게는 베토벤의 작품들로만 음반을 구성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이에 프로듀서도 흔쾌히 동의하며 이번 음반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베토벤의 탄생 250주년 기념을 앞두고 있어서 더욱 값진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느꼈고요."

뉴욕 스타인웨이 홀에서 녹음이 진행된 이번 음반 역시 스피리오 피아노 라이브러리에 수록되었으며, 특별히 그중 <'열정' 소나타>는 지난 10월, 스피리오 하이라이트에 선정되어 기재되기도 했다. 음반의 프로듀싱은 Jon Feidner가 맡아서 진행했다.

"Jon Feidner는 음 하나도 놓치지 않는 예리함,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뛰어난 프로듀서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제가 가진 음악적인 의견을 많이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주었죠. 보통 녹음 작업을 진행하면 저는 홀에, 프로듀서는 레코딩 부스에서 있곤 하는데 <'열정' 소나타>를 녹음할 때는 그가 마치 관객처럼 홀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실황 연주처럼 녹음하게 되었는데 연주가 끝나고 나니 프로듀서가 "이 연주가 음악회에서의 실제 연주였고 내가 청중으로 와 있었다면, 너를 정말 큰 재능을 가진 연주자라고 평했을 거다. Terrific!"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동안 제 연주를 지켜보고 여러 번 함께 녹음한 프로듀서가 녹음의 마지막에서 그렇게 평해주니 큰 감동으로 다가왔죠. 또한 녹음 작업을 통해서 베토벤이라는 작곡가에게도 한층 더 깊이 들어가며, 그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노력할 수 있었기에 더욱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베토벤, 삶을 넘어 무한으로 나아가는 힘

오로지 베토벤의 작품으로만 구성된 탁영아의 이번 음반. <론도, Op.51-1>, <피아노 소나타 제6번, Op.10-2>, <제18번, Op.31-3>, <제23번, Op.57>이 음반을 채운 목록들이다.

"<론도, Op.51-1>은 짧고 단순하지만, 이를 잘 다듬어 원하는 표현이 세련되게 나오기까지는 노력과 시간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비교적 초기 소나타인 <제6번, Op.10-2>에서는 작품이 가진 특유의 경쾌함에 어울리는 소리와 리듬을 표현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썼죠. <제18번, Op.31-3>은 여러 번 연주를 했어도 다시 악보를 대하면 새로운 점들이 발견되어 애착이 가는 작품입니다. 네 개의 악장들이 모두 각각의 음악적 매력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우아한 유머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열정' 소나타>의



경우는, 사실 음반에 넣기가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곡이고, 항상 곡에 대한 애정은 있었지만 훌륭한 레코딩이 많이 있는 만큼 조심스러웠던 곡이었죠. 하지만 최근 이 작품을 깊이 공부하고 연주하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비극적이며 드라마틱한 동시에, 따뜻한 위로가 섞인 음악을 느낄 수 있었죠. 베토벤이 여러 개의 악장을 통합하여 하나의 큰 곡을 만들어내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연주할 때마다 마치 하나의 의미 깊은 여행을 경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탁영아의 베토벤 연주에는 그녀가 사사한 스승들 중 베토벤의 연구에 특별한 심혈을 기울인 레온 플라이셔, 러셀 셔먼에게서 받은 영향도 고스란히 쌓여있다. 베토벤이라는 작곡가에 대한 열망이 커지기까지, 또한 진중하게 끊임없이 다가가는 자세를 갖기까지 베토벤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연구는 그녀에게 영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베토벤은 상상력과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기도 해서 전통적인 구조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작곡하는 것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음악을 접할 때 잘 짜인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특유의 자유와 드라마틱한 감정에 대해 밸런스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베토벤이 작품 안에서 곡을 써나가는 과정, 구조 안에서 곡이 전개되고 해결되는 과정 등을 파헤치고 차츰 깨달아가면서 연습하는 것은 많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동시에 참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베토벤의 음악들로 무대에 오를 일이 많았다는 탁영아는 지난 10월에도 Northern Orchestra of New York과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1번> 협연 무대를 가졌다. 오는 11월, 음반 발매 기념으로 진행

될 베토벤 작품 중심의 독주회가 끝나면, 내년 초 캔사스 음대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David Colwell과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연주가 기획되어 있다.

“베토벤의 작품들을 공부하고 연주하며, 저는 살아가면서 매일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들을 그의 음악 안에서 다시 느끼고 경험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과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 사이의 더욱 미세한 감정들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힘이 베토벤의 작품에는 있는 것 같아요. 깊이 있고 숭고하며, 영적인(spiritual) 면을 작품을 통해 접하게 되고, 그렇게 베토벤의 음악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을 넘어 무한으로 나아가는 힘을 주죠. 그 음악은 지금 우리가 속해있는 세상보다 더 큰 것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동시에 인간적이고 따뜻하지요. 그래서 더욱 매력이 있는 작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이런 음악을 대하고 경험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이번 녹음을 위해 베토벤의 음악 안에서 그의 의도를 찾아나가는 과정을 다시금 경험하면서, 제가 왜 음악가가 되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음악에 대해, 나아가는 길에 대해 더욱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은 베토벤 음악의 지극히 철학적인 면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저 스스로의 성장과 음악적 발전에 모두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현재 탁영아는 뉴욕 주립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Potsdam) 음대 피아노과 과장으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Crane International Piano Festival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하는 등 다방면의 음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가오는 11월 스타인웨이 초청으로 음반 발매를 기념하며, 그녀는 스타인웨이 아티스트 일환으로 진행될 독주회를 앞두고 있다. 내년 여름에는 한국에서도 청중을 만날 계획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함께 전해왔다. 음악, 특별히 베토벤의 걸작들에서 삶을 넘어서는 무한의 감동을 마주하고 있는 그녀의 연주를 만날 날을 고대해본다.

“음반 발매 기념으로 스타인웨이 홀에서 독주회를 하게 되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반에 실린 베토벤의 소나타 두 곡과 드뷔시의 <영상 1집>을 연주할 예정입니다. 제가 녹음 작업을 거쳤던 곳으로 돌아가서 독주회를 하게 되어 더욱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녹음과 공연이라는 다른 형태의 음악 작업을 하게 되어 어떤 차이점을 느끼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독주회 이후에도 꾸준히 베토벤의 곡들로 뉴욕 텍사스 필라델피아에서 솔로와 실내악 등 다양한 형태의 연주들이 계획되어있고 내년에는 한국에서도 독주회를 계획 중입니다. 베토벤의 작품으로 그의 음악 안에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것에 기대가 되고 음악가로 무척 뜻깊은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글 · 허서현 기자